

인공신장실 인증 시범 사업 보고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김 대 중

Report on Pilot Project of Hemodialysis Center Accreditation System

Dae Joong Kim, MD

Director of Dialysis Committe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인구의 고령화, 당뇨병의 증가와 함께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의수는 최근 20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투석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의료비용 또한 연간 1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혈액 투석 설비의 증가는 환자 수의 증가를 능가하여, 필요한 투석기보다 50% 과잉 투자되어 있고 일부 기준 미달의 인공 신장실까지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신장실 간의 과다 경쟁, 불법 행위 및 적정 진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처하고자 인공신장실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대한신장학회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은 서울 서남부 지역 인공신장실 25개 센터를 대상으로 2010년 2월부터 4개월간, 2차 시범 사업은 서울 동남부 지역 및 성남 지역 인공신장실 28개 센터를 대상으로 2011년 3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인공신장실 인증 기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 등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만들었다.

시범사업의 실시는, 평가대상 지역 및 평가 기간과 일정 설정, 평가위원 선정, 병원 대상 설명회, 평가위원 사전 모임 (워크숍), 인공신장실 조사표 작성 (1차) 혹은 온라인 입력 (2차 이후), 평가위원 현장 평가, 평가 위원 평가 회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평가한 25개 센터 중 12개 센터가 (48%) 2차 시범 사업에서는 평가한 28개 센터 중 25개 센터가 (89%) 가 인증받았다.

1차 사업에 비하여 2차 사업에서 인증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회원들이 1차 시범 사업의 결과를 알고 있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점, 인증이 어려운 센터는 신청을 포기한 점 및 인증 기준 자체가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좀더 현실성 있게 조정된 점을 들 수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하여 인공신장실 인증사업이 신장학회 및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신장학 분야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2차례의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인증 기준, 절차,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등이 본 사업에 대비하여 점차 발전 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차례의 시범 사업을 거쳐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